

“디지털시계 안 되고, 시험종료 종친 뒤 답안 쓰면 무효처리”

대입 수능 D-DAY... 주의사항은

소화 어려운 옛·떡 등 조심하고 커피·물도 평소 양만큼 마셔야 일찍 도착해 화장실 위치 파악

쉬는시간 채점대신 다음교시 대비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 금지 시계는 오로지 아날로그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며 수능이 2주 연기됐지만, 올해는 연기 없이 예정된 날짜에 시행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9821명이다. 49만3434명이던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 늘었다.

◆수능 날 아침 보양식·떡·옛 지양...수험장 일찍 도착해 분위기 적응해야 수험생들은 그간 쌓아온 역량을 펼치기 위해 수험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예비수험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들을 숙지하는 게 좋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날에도 모든 면에서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음식도 보양식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속이 좋지 않으면 시험에 집중할 수 없고, 옛과 떡도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커피나 물은 많이 마시면 긴장을 푸는 효과가 있으나 자주 화장실을 가야할 수 있으니 커피나 물도 평소 양만큼만 마시

게 좋다”고 말했다.

당일에는 시험자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시간에 쫓기면 실수하기 쉽고, 불안감이 커져 더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소장은 “시험장에도 조금 일찍 도착해서 화장실 위치도 파악하고 적응하도록 하라”며 “방석이나 무릎 담요, 액상 소화제, 초콜릿, 슬리퍼, 보온병의 차 등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이영덕 대성학원 소장도 “당일 기상

후에도 짜인 스케줄에 따라 마지막 검토를 하고,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을 통해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뇌의 활동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험장에서 가급적 말하지 말고, 쉬는 시간 답 맞추지 말 것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아침에 시험장 앞 응원이나, 간식 배포, 담임교사 격려, 학부모 배웅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스크도 필수다. 코로나로부터 감염의 위험성을 덜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특히 화장실 등을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교사장에서 아는 친구들과도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매 교시 끝나고 정답과 맞춰보는 것도 다음 교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이만기 소장은 “틀리면 불안감이 커지고, 정답을 맞췄더라도 채점은 시간의 낭비”라며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와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볍게 해 다음 교시에 대비하는 것이 최고”라

고 말했다.

◆시험장엔 시계 없다

수능 시험장에선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는 물론이고, 일반 디지털시계도 이에 포함된다. 시계는 오로지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다.

특히 수험생은 시험 종료령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52건이었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문제 풀이나 답안지 마킹이 일절 금지되므로 종이 울리는 즉시 펜을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32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수험생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경우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가기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학부모 77% “자녀교육 대면으로 늘릴 것”

위드코로나에 교육방식 속속 변화 대면교육 선호 이유 “학습효과 높아” “비대면 교육만 진행” 7.3% 불과

지난 1일부터 단계별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학생들도 일상을 찾아가는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대면 교육만 진행’하거나 ‘비대면 교육과 병행하더라도 대면 교육의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고 조사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644명을 대상으로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자녀 사교육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대면 교육으로만 사교육을 진행(26.1%)하거나 비대면 수업과 병행하더라도 대면 교육의 비중을 확대

(50.9%)할 것으로 응답했다. 비대면 교육의 비중을 높여 대면 교육과 병행한다는 학부모는 15.7%, 비대면 교육만을 진행한다는 의견은 7.3%에 그쳤다.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선생님과 직접 대면하는 형태가 학습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서’(7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23.0%), ‘자녀가 대면으로 진행하기를 원해서’(17.5%),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해서’(8.1%) 순이었다.

비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여전히 대면 교육을 통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81.8%) ▲시간·공간 활용 등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 마음에 들어서(36.5%) ▲선생님 방문·아이 학원 내방 등의 불편함(23.0%) ▲자녀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를 원해서

(13.5%) 등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위드코로나 전후 사교육비 지출 비용을 물어본 결과, 지난 10월 말까지 1가구 기준 월평균 46만원을 지출했으나,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약 6만원 가량 상승한 월평균 52만 9000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면 교육을 확대하는 데 따른 사교육비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위드코로나 전환 시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복수 응답)은 ‘자녀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82.1%)가 가장 많아 여전히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규칙적인 생활 지도·관리의 어려움’(43.6%), ‘전면 등교로 인한 자녀의 학교 수업 걱정’(40.8%)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나노버블 기술, 삼성메디코스에 이전

기술이전 산학협력 업무협약



한경식 삼육대 산학협력단장(왼쪽), 서경 삼성메디코스 대표가 양 기관 산학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은 제약기반 코스메틱 전문기업 삼성메디코스와 나노버블 기술이전을 골자로 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육대가 삼성메디코스에 이전하는 기술은 화학생명과학과 박명환 교수가 보유 중인 ‘AHP-8을 포함하는 나노버블 화장품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다.

나노버블(초미세 공기방울) 기술은 특정 기체 혹은 유효성분을 선택적으로 포집해 압력 없이 장시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고효율의 유효성분 전달특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수산업, 농업, 환경, 전자,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더마코스메틱(약국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분야 기술수

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공기와 산소만으로 구성된 나노버블과 함께 입자화 된 성분은 뛰어난 피부 투과도를 보여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다. 또 기존의 다양한 화장품에 확대 적용할 수 있기에 노화방지, 미백, 재생 화장품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나노 유전자 편집기술 활용 체장암 치료”

윤태종 아주대 교수 연구팀 치료제 개발 성공... 활용 전망

국내 연구진이 나노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체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기존 체장암 치료제에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아주대에 따르면, 윤태종 약학과 교수(사진)는 나노 입자 전달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유전자 가위 단백질 소재를 탑재하는 방식을



통해 두 가지의 유전적 이상 부위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새로운 체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관련 내용은 저명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11월1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약물 내성 체장암 치료를 위한 원샷-이중 유전자 편집’이다.

조영석 가톨릭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도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치료제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현재 체장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젬시타빈)에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윤태종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체장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편집해 없애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그동안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한계로 남아 있던 유전자 가위 단백질 소재의 혈관 내 분해 문제를 해결해 없애서 새로운 체장암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이현진 기자

세계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고려대 교수 5인

HCR에 선정... 김중승 교수 8년 연속

글로벌 기업 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가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 고려대 교수 5명이 이름을 올렸다.

17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엔 HCR에 선정된 고려대 교원은 김중승(화학)과, 노준홍(건축사회환경공학부), 안춘기(전기전자공학부), 옥용식(환경생태공학부) 교수와 제2소속이 고려대인 클라우스 R 필러(뇌공학과) 교수 등 총 5명이다.

5명의 교원 모두 최소 3년 이상 변함

없이 HCR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김중승 교수는 2014년 이래 화학 분야에서 8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노준홍 교수는 크로스 필드 분야에서 4년 연속 선정됐고, 안춘기 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3년 연속 선정됐다.

옥용식 교수는 2018년 크로스 필드 분야에서 HCR에 선정된 후, 2019년 한국인 최초로 환경 및 생태학 분야에서 선정되어 오다가 올해는 공학 분야까지 2개 분야 동시 HCR로 선정됐다. 제2소속이 고려대인 클라우스 R 필러 교수는 크로스필드 분야에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